

## [ 경제 ]



“인생을 함께하는 배우자와 멋진 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다. 한달에 한번 정도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고급 가구나 가전제품을 구입한다.”

흔히 신혼하면 위와 같은 달콤한 꿈과 낭만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꿈에 오래 빠져 있다 보면 남들보다 한걸음 뒤쳐지게 마련이다. 결혼은 현실이며 꿈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해보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뗀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05년 전국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가정이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한 적이 있으며, 부부갈등 원인의 57%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았다. 행복할 것으로 믿고 시작한 결혼생활이 돈 문제로 인해 불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 돈 문제 만큼은 서로 투명하게 공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기 위해선 신혼 초기에 자신의 재무계획을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첫 단추를 잘 끊어야 한다.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요즘 신세대 부부들을 보면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즉 결혼을 하면서 월급통장을 따로 관리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자산을 형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부부간의 소득과 지출이 따로 관리될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과다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축과 투자를 하더라도 부부의 재무목표를 무시한 일방적인 재테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재무문

## 월급통장 따로 관리하면 자산 불리기 제대로 안돼

### 소득 중 50% 이상 고정 투자 후 지출계획 세워야

제에 대한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돼 서로 모르는 재무문제가 발생할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다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빚만 찌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돈 문제만큼은 부부간에 대화를 많이 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신혼 초기에 서로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혹 배우자가 모르는 사적

인 재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솔직히 털어놓고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적인 통합을 이뤘다면,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신혼인 경우 자녀가 출산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산형성의 기초를 마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

흔히 신혼부부의 경우 당장의 소비를 늘려 생활수준을 높여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지금의 지출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을 지금하는 것인지를 판단해 지출해야 한다.

소득과 지출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월 말 부부의 지출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달의 월 예산을 작성해 이를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다. 가계부 작성을 통해 지출 관리를 하고, 소득 중 50% 이상을 먼저 고정투자 후 나머지로 지출계획을 작성한다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고정투자금액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TNV 파이낸셜클럽 팀장)

## 결혼으로 4주택 팬 양도세 과세

### 국제심판원 “일시적 1가구 3주택까지만 비과세” 판결

각각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1세대 4주택이 될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팔더라도 대체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이사 목적이나 혼인, 합거 등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또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가 결혼해 일시적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인 A씨는 역시 일시적 2주택을 갖고 있는 B씨와 결혼, 일시적으로 1세대 4주택이 됐다.

A씨는 결혼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2002년 11월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5천 400만원을 납부했다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

/연합뉴스

을 수 있다는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혼인 또는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칠 경우 일시적 1세대 3주택까지는 신규주택 구입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를 비과세하지만 1세대 4주택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보유자로서 1세대 1주택 특례조항을 충족한 상태에서 결혼으로 인해 비과세대상인 주택이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세심판을 청구했다.

국세심판원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는 신혼생활 주거안정을 보호하고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법령상 근거는 미비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결혼으로 인한 1세대 3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1세대 4주택이 된 경우까지 비과세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비과세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환경호르몬 걱정하지 마세요”

2일 서울 한국도자기 청계 8가점을 찾은 고객들이 규석, 정석, 점토, 본래수 등 각종 천연 원료로 빚은 도자기를 살펴보고 있다.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로 빚는 도자기는 환경호르몬 걱정이 없는 웰빙식기로 알려져 있다.

/연합뉴스

## 삼성 와이브로 국제 호환성 ‘굿’

### 차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등 장비 테스트서 호평

삼성전자가 개발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와이브로(모바일 와이맥스)가 국제적인 호환성 테스트에서 뛰어난 성능을 인정 받았다.

삼성전자는 최근 와이맥스포럼이 실시한 모바일 와이맥스(IEEE 802.16e) 장비 호환성 시험행사인 ‘플러그페스트(Plugfest)’에서 호평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와이맥스포럼 주관으로 미국 메릴랜드에서 지난달 24일부터 1일(미국 시간 기준)까지 열린 플러그페스트는 단말기에서 기자국으로 이어지는 모바일 와이맥스 시스템을 실제 상용 서비스 상황과 똑같이 연결해 장비간 호환성과 성능을 시험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텔, 모토로라, 비시, 포스데이터 등 총 21개 국내외 모바일 와이맥스 장비 및 단말기 제조업체가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와이브로로 기지국 장비와 단말기는 모바일 와이맥스 프로파일(Profile)의 모든 가능 시험에서 상용 서비스

에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의 성능과 안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로 다른 제조사의 장비와 단말기 간 통신이 이뤄지는 호환성 확보는 통신 장비와 단말기의 성능은 물론, 사업자의 신규 서비스 상용화 시점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와이맥스포럼은 IEEE 802.16 표준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 및 기술의 표준화, 상호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삼성전자, 인텔, 스프린트, KT 등 40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 정보통신총괄 이기태 사장은 “와이브로가 스프린트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데 이어 국제적인 호환성 테스트에서 성능을 인정 받음으로써 차세대 통신 시장을 주도하는 기술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수입육류 ‘X-레이 검사’

### 농림부 도입 여부 검토

농축산물 검역 당국이 수입 육류에 대한 안전성 제고 차원에서 납입이나 빼 등을 탐지하는 X레이 투시방식의 식육 이물검출기 도입을 검토중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2일 “박홍수 장관이 최근 검역 현장 순시 때 수입 농축산물 전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과거 육류 수출업체들이 사용했던 식육 이물 검출

기 도입 필요성을 제기, 현재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 육류에 대한 검역은 전문가들의 육안 검사 방식으로 이뤄져 뼈 조각이나 금속 등 이물질을 완벽히 걸러내기 힘든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수입 육류를 X레이로 전향 검사하는 사례가 다른 나라에도 없는 만큼 국제적인 관행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입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t@kwanju.co.kr

## 국내 대표기업 ‘보수적 경영’

###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

#### 투자소홀 부채비율만 낮춰

국내 주요업종의 대표기업들은 지난 친수보수적 경영에 따른 투자부진으로 부채비율이 100%를 밟거나 세계 주요기업보다 훨씬 낮은 반면 총자산금 가운데 단기성 차입금 비율은 세계 주요기업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내 대표기업들이 성장잠재력의 약화 가능성은 보여주는 동시에 예기치 못한 금융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은 음식료·화학·철강·전기전자·자동차·통신 등 6개 주요 업종의 국내외 상위 3개 대표기업을 선정해 2003~2005년의 경영성과를 비교, 3일 발표한 ‘주요업종별 국내외 대표기업의 경영성과 비교’에서 이러한 분석을 내놨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표기업들의 부채비율 평균은 2003년 124.4%, 2004년 111.4%에 이어 2005년 99.5%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세계 주요기업의 부채비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국토정보기술단(주)	총무사무원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09	062-430-0099
㈜그린텔	KTF 유통서비스플라자 지점장 모집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10/12	042-223-4900	
씨에스케이	기계설계기사 인재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2	062-530-0817	
㈜엔지티크	병원프로그램 개발자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62-675-8750	
나니풀산	[광주]국내 대형 할인점 매장·가게·점포 관리 및 영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3	032-623-7203	
정광금속(주)	거래처 영업관리직 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10/13	062-952-9557
㈜한국에센	GIS관련 경력직 채용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10/14	062-651-9768	
㈜삼성홀더티	기전.PC.중수리.멀티A/S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2400~2600	10/14	011-632-5688
㈜한시스	기술영업부/광주영업소	고졸/경력2년 회사내규	10/15	031-495-4380	
㈜경진산업개발	자동차부품 생산직 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15	062-523-2072	
궁전제과	판매직 매니저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17	062-222-3477
㈜한국족량공사	기술직 신입/경력 자직 확정 졸업, 관리직 경리/비서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0/20	031-783-7920	
㈜알케이미에씨	롯데마트 첨단점 판매시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000~1200	10/20	062-572-0835
대한엔진니어링	PLC/MHI Application, Software 개발, 시운전 관리	고졸/경력3년	3200~3400	10/21	062-945-2567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고향집·땅 팔까 말까?

### 이번 추석엔 결정하라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연휴가 길어 성묘길에 고향 땅을 둘러보고,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고향 땅이나 주택 등에 대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좋을 듯 싶다. 하지만 사전 지식 없이는 해결 방안도 없는 법.

고향 땅 팔까 말까. 이때 세금 계산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내년부터 부자지주 소유의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 비사업용토지(나대지·잡종지)의 양도세 비율이 현재 9·36%에서 60%로 높아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기 힘든 곳은 세금이 증가되거나 전인 연

**내년부터 稅부담 늘어**

내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매매·보유 선택해야**

새로 토지 취득할 경우엔 규정을 따져봐야 한다. 개발 재료가 있는 곳의 토지는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둘러 있는데 이런 곳의 땅은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살 수 있고, 취득자금 조달계획도 내야 한다.

따라서 본인이 살 수 없다면 고향에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친지 등의 명의로 공동투자 하는 것을 검토해 볼만하다.

이와 함께 허가구역 농지의 경우 취득후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 임야는 3년(수확률 없는 경우 5년) 동안 팔 수 없어 일정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만약 땅을 허가받은 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토지 거래행위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주는 ‘토(土)파리자’ 제도도 운영중이어서 조심해야 한다. 외지인이 소유한 주말농장(303평 이하)은 부자지주의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취득도 비교적 자유로워 관심을 가질 만하다.